

제4회 포천시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

입상자 300명 ... 홍영숙 · 류충환 경기도대회 선수 발굴



지난 27일 소흘읍 청명스포츠클럽 수영장에서 개최된 제4회 포천시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에서 일동중 · 고, 대진대 선수들로 구성된 싱크로나이즈드선수들이 시범경기를 치르고 있다.

포천시수영연맹(회장 김중국)은 지난 27일 소흘읍 청명스포츠클럽 수영장에서 제4회 포천시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발굴을 목적으로 박운중 포천시장을 비롯한 내빈 및 관계자,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최

를 열었다. 포천시수영연맹 박운중 전무는 "앞으로도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대회를 주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로 홍영숙(여), 류충환(남)이 발굴돼 포천시선수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경기종목은 경영으로 자유형, 평영, 배영, 접영, 개인혼영으로 예선을 거치지 않고 기록에 의해 순위를 결정했는데, 12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이날대회의 입상자는 300명(중복자 포함)으로 각 부별 입상선수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 >학생부 최우수 유미나(일동중, 여), 조성민(포천중, 남) >일반부 최우수 김민정(여), 류충환(남). >우수 >초등부 우인희(추산초, 여), 이형태(추산초, 남) >중등부 구슬(일동중, 여), 심완(일동중, 남) >고등부 구한영(일동중, 여), 강성모(동남고, 남) >일반부 김명자(여), 권영훈(한화, 남). >최연소선수 장승영(7세, 여) >최고령 선수 이용경(60세, 남), 백남정(74세, 여).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7회 선단 · 포천동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선단체육회(회장 이천목)는 지난 27일 대진대학교 운동장에서 제7회 선단 · 포천동 체육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포천 · 선단축구협의회(회장 강명호)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포천동과 선단동의 12개팀(포천FC, 한내, 위너스, 선단드래곤즈, 자작FC, 군내, 대진FC, 강호, 신평전, 반월, 신후FC, 한신태풍)이 출전해 각 팀의 기량을 겨루었다. 4개조로 나뉜 치른 예선전은 리그전으로 치러졌고, 각조 1위팀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과 결승을 치렀다. 한편 이날 우승팀은 포천FC의 경기포기로 포천위너스팀이 우승기와 트로피를 획득했으며, 신평전과 선단드래곤즈는 공동3위를 차지해 트로피를 부상으로 받았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27일 대진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7회 선단 · 포천동 체육회장기 축구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내빈들이 시축을 하고 있다.

탐방 | 지역체육회 ⑦ 내촌면체육회 회장 김용길

운동 여건조성과 종목발굴에 앞장



김용길 회장 내촌면체육회

1982년에 창립, 23년의 역사를 가진 내촌면체육회는 초창기 친목회형식으로 운영되어 오다 1997년 지역의 면장이 별정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도로 변화를 이루었다. 2004년 1월부터 내촌면체육회를 이끌며 지역주민과 체육회의 조화와 단합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용길(45·사진) 회장으로서는 체육회의 현황 및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김용길 회장은 내촌면에서 대일건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회 사무국장을 거치면서 지역체육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촌면 체육회는 회장단과 재정이사 20명, 위원 7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중에는 당연직으로 면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이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내촌면 체육회의 특징은 수석부회장 1명과 3명의 부회장을 두고 각 부회장에 2개의 분과씩을 맡겨 놓았다. 내촌면 체육회의 분과는 >민속문화분과 >불림분과 >배구분과 >테니스분과 >축구분과 >탁구분과 >육상분과 >홍보행사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김용길 회장은 최초의 체육회 조직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말한다. "초창기 체육회는 1년에 한두 번씩 군 단위 대회를 참석하는 것 이외에 체

력증진을 위한 활동은 별로 없었다"며 "1997년 부임한 이상호 면장이 체육회가 면민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하자"고 제안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반발이 많았었다"며 면 체육회의 변화를 모색하던 중 마을의 이장들과 체육회임원들간의 불화가 있었다는 김 회장은. "이 문제는 당시 김영재 전 면장의 중재로 무사히 지나게 되었다"며 "제1회 면민 체육대회를 이장협의회장이 맡아 시작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대회는 비록 적은 돈으로 준비했지만 현재 대다수 면이 채택하고 있는 법정리 대항이 아닌 행정리 대항으로 대회를 치렀고 가수 최진희의 공연 등을 부가해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내촌면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지난해 제3회 대회까지 치렀다. 김 회장이 밝히는 2005년 내촌면 체육회는 "기존의 자체대회와 신설대회를 통해 내실 있는 체육회운영의 한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내촌면 체육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5년도 체육대회는 >5월 제3회 면민

경기대회 >5월 직장 및 단체 축구대회 >제1회 체육회장배 리대항 축구대회와 10월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 등이 있다. 특히 "면단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을 것"이라며 "제3회 면민 경기대회는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회시 서울남우회의 우수 및 뺑 제공 등 지역 기업들의 참여 속에서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2005년에 계획한 리대항 축구대회는 잠재된 내촌면 축구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우수 선수 발굴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체육회는 지역주민들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종목을 발굴해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곳이다"며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하루속히 완공돼 면민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한마당 체육행사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7 포천시검도협회 이충무 회장

여러분의 참여가 포천의 검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충무 회장 포천시검도협회

포천시검도협회는 포구관이 포천에서 검도관을 열고 시작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00년 창립, 연합회와 협회로 출범하게 됐다. 포천의 검도는 포구관(관장 박종선, 군내면)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송우리 검도교실(관장 이경훈, 소흘읍), 명무관(관장 이명수, 신북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체육대회 등 각종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포천시 종합승의 1등 공신이 되어 왔다. 2000년도 검도연합회 출범당시부터 현재까지 포천검도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충무(47·사진) 회장으로서는 포천 검도의 현황과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검도에 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협회장의 역할을 수락했다는 이충무 회장은 현재 포천시 신용동에서 북일종합건설을 운영하고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포천시검도협회는 이충무 회장을 필두로 1명의 부회장과 20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에 더할 나위 없는 운동이죠"라며 말문을 연 이 회장. 이 회장은 포천 검도의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출발할 당시에 비해 용기와 의욕이 많이 저하된 상태"며 "검도를 배우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경제하락으로 인한 비인기 종목의 실용을 특별히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검도협회의 회원은 총 5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내 동호인은 200여 명정도로 파악된다고 있다. 이 회장은 "전국적으로 50여만 명의 동호인이 있으며, 대한검도회 등록 유단자만 15만으로 추정된다"며 "상대적으로 포천은 검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부족한 동호인으로 인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변확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천의 검사(劍士)들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고 자랑했다. 동호인은 주로 40~60대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돼 있다. 처음 협회 출범 당시의 포천 검도에 대해 이 회장은 "관내 검도를 홍보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출범 당시만 해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02년 경기도 검도대회인 3·1절 대회를 유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 검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회장은 "시설의 개선과 도심과 가까운 도장의 위치에 입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회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포천 검도를 이끄는 협회나 선수양성의 주춧돌인 검도관의 정립을 강조하는 이 회장. "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관원의 증대를 통한 검도관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인정이 함께 해야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검도부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트 체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송우검도교실에서 검도부를 운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검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학교체육과의 연계라고 한다.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그 학생들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해 연계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포천의 검도는 뿌리부터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잠시 검도협회가 주춤거리는 것은 사실이다"며 "경계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검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지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검도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2년 제4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검도선수단.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 이 함께 합니다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영동 1호 세트
100g × 36인분 3.6kg



☆영동 2호 세트
100g × 24인분 2.4kg



< 생산품목 >

- 영동국수 · 소면 ● 영동메밀 · 칼국수
- 곰표국수 · 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 · 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 · 칩 · 죽국수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 ·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